KWDI
해외통신

2019년 2월 1차 (2019.2.1~2.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네덜란드 Nederland

네덜란드 육상코치의 35년 간 성적학대 사건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한국은 작년 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춰져왔던 스포츠계 여러 피해사례가 제보되면서 일명 '스포츠 미투' 움직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체육계에서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적 특징을 악용한 성적, 신체적 폭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2018년 네덜란드 체육계에서도 한국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네덜란드 체육계에서도 발생한 바 있어 본 원고에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2018년 네덜란드의 한 육상코치가 여자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무려 1983년부터 약 35년간 발생했다는 점으로 현재 이 코치는 58세이다. 네덜란드 내 가장 큰 신문사인 De Telegraaf에 따르면, 이 코치는 11살, 15살이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번 성폭행을 한 적이 있고, 두 선수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됐다. 네덜란드 스포츠정의기관(Instituut Sport Rechtspraak, ISR) 징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코치로부터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최소 9명에 이르고, 해당 코치는 이를 인정했다. 코치의 성적 학대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로테르담 및 헤이그 선수훈련용 클럽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위원회 조사 결과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 합법적이지 않은 마사지를 받거나 성추행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0년과 2009년 일부 선수 측에서 해당 고치를 경찰에 고발하려 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가 짊어질 결과를 계속 언급하면서 결국 사건은 공론화되지 않았다.

-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9년 1월 초, 검찰 및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본 사건과 관계된 누구든지 제보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검찰 내 본 사건 전용 핫라인도 개설했다.

참고자료

- De Telegraaf (2019). "Groot onderzoek OM naar misbruikschandaal Jerry M", 2019년 1월 8일자, https://www.telegraaf.nl/nieuws/2999548/groot-onderzoek-om-naar-misbruikschandaal-jerry-m (접속일자: 2019년 2월 10일)
- De Telegraaf (2019). "Vervoersbedrijf RET zet Jerry M. op non-actief na onthulling misbruik", 2019년 1월 6일자, https://www.telegraaf.nl/nieuws/2988771/vervoersbedrijf-ret-zet-jerry-m-op-non-actief-na-onthulling-misbruik (접속일자: 2019년 2월 10일)
- NL Times (2019). "Dutch coach accused of sexually abusing underage athletes for years", 2019년 1월 7일자, https://nltimes.nl/2019/01/07/dutch-coach-accused-sexually-abusing-underage-athletes-years (접속일자: 2019년 2월 10일)
- NL Times (2019). "Investigation launched into child sex abuse by Rotterdam coach", 2019년 1월 9일자, https://nltimes.nl/2019/01/09/investigation-launched-child-sex-abuse-rotterdam-coach (접속일자: 2019년 2월 10일)

- 현재 이 코치에 대한 검찰의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로테르담 검찰은 그동안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수생활 당시 겪은 경험, 해당 코치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육상협회가 작년 이 코치를 직무 정지시켜 코치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그는 로테르담 대중교통회사 RET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잇따른 언론보도와 그의 혐의사실 인정을 계기로 RET에서도 지난 1월 초 그를 직무정지 조치시켰다.

- 네덜란드 내 각종 사회문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인 Slachtofferhulp Nederland에 따르면, 네덜란드 체육계에서 코치, 관계자, 또는 다른 선수들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sexual misconduct)이 있었다고 재단 측에 제보한 사건 수가 2017년 약 30건에서 2018년 70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접수된 사건의 90% 가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총 접수 사건의 약 55%가 여성 피해자라고 한다. Slachtofferhulp Nederland는 이번 대대적인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해당 코치에 대한 수사결과와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체육계에서의 추가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여성 혐오도 혐오 범죄에 포함” 움직임 확산

황 수 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과정

- 영국에서는 ‘여성 혐오(misogyny)’를 혐오 범죄(hate crime)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크레시다 딕 런던경찰청장(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에게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경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혐오 범죄만큼이나 여성만 공격하는 성별 혐오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1월 14일 영국을 대표하는 범죄 통계인 잉글랜드 웨일스 범죄 통계(Crime Survey of England and Wales)를 인용, “2018년 전체 범죄 6만7천 건 중 여성을 노린 범죄가 총 5만7천 건이며, 피해를 본 여성의 나이는 주로 16~44세였다”고 보도했다.

-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혐오 범죄로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내용을 근거로 영국 경찰과 검찰은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The Guardian (2019). “Campaigners and MPs call for misogyny to be made a hate crime”, 2019년 1월 14일자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an/14/campaigners-and-mps-call-for-misogyny-to-be-made-a-hate (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 Metropolitan Police (2019). “What is hate crime?”, https://www.met.police.uk/advice/advice-and-information/hco/hate-crime/what-is-hate-crime/ (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 CPS (2019). “Hate crime”, https://www.cps.gov.uk/hate-crime (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에는 국회의원 조 스윈슨, 스텔라 크레이지, 피터 보텀리와 전 내무장관인 자키 스미스와 영국 노팅엄셔 주(County)의 자치경찰위원장인 패디 티핑이 서명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Citizens UK와 Women's Aid, the Fawcett Society도 함께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한은 딕 런던경찰청장과 새라 손튼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Council, NPCC) 의장에게 발송됐다.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많은 여성이 길거리나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성추행에 노출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여성 혐오를 혐오 범죄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경찰에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여성 혐오를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일탈 정도로 인식하는 경찰 고위 간부들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손튼 의장은 지난해 열린 경찰서장 협의회 연례행사에서 여성 혐오는 범죄가 아니며, '핵심 경찰 병력(core policing)'을 여성 혐오 사건 수사에 쏟아 부을 시간과 자원이 없다고 말해 여성 권리 옹호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the Fawcett Society의 샘 스메더스 대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혐오는 여성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뿌리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성을 노리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6/jul/13/nottinghamshire-police-count-wolf-whistling-hate-crime<접속 일자: 2019년 1월 29일>

- BBC (2016). "Nottinghamshire Police records misogyny as a hate crime", 2016년 7월 13일자 https://www.bbc.com/news/uk-england-nottinghamshire-36775398 (접속일자 2019년 1월 29일)

캐나다 CANADA

캐나다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사회적 파장 일으켜

김 양 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지난 2015년 캐나다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팀 코치가 90년대에 어린 여자 선수들을 성폭행해 왔고 스키협회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해 온 것이 뒤늦게 피해자의 고발로 알려져 캐나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최초 피해자가 나서자 곧 총 열 두 명의 전직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선수들이 해당 코치에 대한 소송에 참여했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코치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수치심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1998년 유럽선수권대회 중 몇몇 피해자들이 자신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열 두 명의 피해자 중 네 명의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언론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대표팀 내의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데 앞장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 2017년 캐나다 법원은 해당 코치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열 두 명의 고발된 사례 중 아홉 건의 사례에 대해 혐의를 인정, 총 37회의 성폭력과 성적 착취(sexual assault and exploitation)에 대해 피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중 네 명의 전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2018년 12월 캐나다 알파인 스키협회(Alpine Canada)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였다. 이들 피해자들은 캐나다 알파인 스키협회가 선수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협회가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등 어린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30만 캐나다달러(약 2억 5천만 원)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성적 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과 15만 달러(약 1억 2천 7백만 원)의 징벌적 보상금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이에 2018년 6월 캐나다 체육부의 커스티 던컨(Kirsty Duncan, The minister of sport)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체육 협회들로 하여금 첫째, 그간 협회 내에서 있었던 일체의 희롱, 폭력, 차별 사건들에 대한 조사 사례를 체육부에 즉각 보고하고, 둘째, 협회와 무관한 제 3의 조사 기관을 즉각 조직할 것이며, 셋째, 2020년 4월 까지 협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희롱 및 학대 의무적인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협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체 중지하겠다는 경고성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을 가지고 협회들을 통제하려는 연방정부의 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90년대 내셔널 하키리그 남자하키선수 쉘던 케네디(Sheldon Kennedy)가 코치로부터 장기간 성폭력 당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 및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폭력 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성폭력 관련 교육, 대응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 터진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은 그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방증하고 있다.

참고자료

- Donnelly, Peter & Kerr, Gretchen (2018). Revising Canada's Policies on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A Position Paper and Recommendations. Centre for Sport Policy Studies Position Papers. Toronto: Centre for Sport Policy Studies, Faculty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 Star, Editorial Board, 2018, Ottawa rightly ties federal funding to stronger policies to end abuse in sport https://www.thestar.com/opinion/editorials/2018/06/19/ottawa-rightly-ties-federal-funding-to-stronger-policies-to-end-abuse-in-sport.html
- Montreal Gazette, Ex-national ski coach Bertrand Charest gets 12-year prison term,2018, https://montrealgazette.com/news/canada/newsalert-ex-national-ski-coach-bertrand-charest-gets-12-year-prison-sentence/wcm/41516afb-ed0b-4e8a-8b48-36c29ee32f89
- Kirby, S.L., L. Greaves, and O. Hankivsky. 2000. The Dome of Silence: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Fernwood.

- 캐나다 언론은 지난 해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의 코치 스티브 페니(Steve Penny)가 의료 및 훈련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여자 체조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175년을 구형한 것에 대비하여 캐나다 시스템의 지나친 관대함을 규탄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이용한 위협이 유명무실한 방법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몇몇 종목의 협회들은 "2인 법칙"(rule of 2)을 도입, 코치와 선수가 단 둘이서 있을 수 없게 제한하는 규칙 등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한편 최근 발간된 연구 보고서(Donnelly and Gretchen, 2018)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조사 대상 42개의 정부 지원을 받는 스포츠 협회 중 94.4%가 성희롱과 성적 학대(sexual harrssment/abuse)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86.1%는 성희롱과 학대가 무엇인지를 규정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나 규정만으로는 선수들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각종 스포츠 협회들의 소속 선수들을 규율하는데 협회 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협회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해 충돌(conflict interest) 문제에 직면하게 함으로, 협회들로 하여금 자체 규율을 강화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